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곧 오소서 임마누엘(찬104/새104장)

기도 Prayer ..... All together 다같이

1부/윤주원 장로 2부/이국선 장로 3부/김효선 집사 4부/이유빈

찬양(1부) Anthem .....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사랑이 예 오셨네(작곡 J. Paul Williams)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Kaleb Lee, Jordan Lee 이로운, 이루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시편 1:1-6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0:1-31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12월의 시편 묵상(1) 바른 길, 바른 마무리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8) 네 가지 역전의 드라마!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 이름 찬양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6분의 노력과 8분의 은혜

6 Minutes Effort and 8 Minutes Grace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팀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후반 45분 종료 후, 추가시간 6분이 주어졌을 때, 역전 골을 넣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을 이겼다고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가나와 우루과이의 승부가 16강 진출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가나가 이기면 한국은 포르투갈을 이겼다 해도 16강에 갈 수 없고, 만약 우루과이가 이기면 골 득실 차이로 16강행이 결정되는데, 우루과이가 3점 이상으로 이기면 한국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끝났을 때, 우루과이는 가나를 2:0으로 이기고 있었고, 추가시간은 8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으면 한국의 16강 진출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나의 선방으로 한국은 극적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추가시간 6분보다,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의 추가 8분이 더 초조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잠시 기분 좋은 환호와 환성 속에 깨달은 것은 우리도 잘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우리 밖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salvation)을 잘 설명해 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고 명하셨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추가시간 6분 동안에 포르투갈을 이겼지만, 8분간의 가나-우루과이전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으면 구원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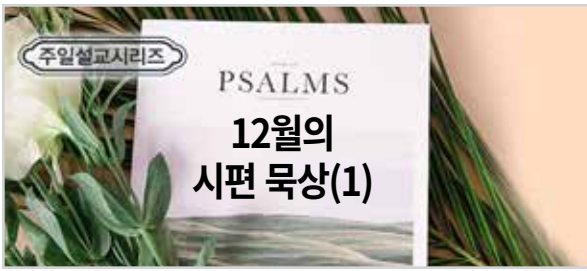
성도의 윤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진력해야 합니다. 6분이 남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8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6분의 최선은 단지 수고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전제되어야 우리의 노력도 가치가 있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8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6분은 갈등과 분노, 후회와 우열의 판가름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은혜가 우선이면, 최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감사와 함께 즐기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월드컵에서 제가 배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In the World Cup Games in Qatar, Korea played against Portugal. They were given an additional 6 minutes to play after the second half. Korean team made a deciding goal to capture a victory. However, just because they defeated Portugal, the win did not guarantee a place among 16 teams advancing to the next round. Key to advancing was in the hands of Ghana and Uruguay game which was being played at the same time. If Ghana wins, Korea could not advance to the final 16 teams, even though Korea defeated Portugal. If Uruguay wins, with a goal difference, Korea could advance. However, if Uruguay wins with more than 3 points, then Korea would not have a chance to advance. When the game with Portugal was about to end, Uruguay was winning 2:0 with 8 additional minutes left to play. If Uruguay makes one more goal, Korea would have no chance of advancing. Ghana played well to keep the same score, and Korea advanced to 16 teams.

I was more nervous and tensed during the 8 additional minutes of Ghana and Uruguay game than Korea's additional 6 minutes. I realized in this brief moment of exhilaration that we had to fight well. However, truth of the matter is that the deciding factors about our lives are often outside of our control. This illustrates the example of our salvation well.

In Philippians 2, we are commanded to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v.12)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v.13). Korea defeated Portugal from the additional 6 minutes of fear and trembling. As we had to wait additional 8 minutes for the result of Ghana-Uruguay's game, we realize that there is no salvation without God's work.

Ethics of Christians are similar. We must work hard and do our best to be a good influence. We must do our best even if we have 6 minutes left. But, without the 8 minutes of grace, our 6 minutes of effort remains only an effort. There must be God's grace on our effort to reach victory. However, without 8 minutes of the grace, our 6 minutes of effort in fear and trembling will remain only as regret and judgment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Therefore, if grace precedes, then our best efforts will become joy with thanks. This is the secret of faith I learned from the World Cup game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바른 길, 바른 마무리
(시 1:1-6)

적용하기

1. 길을 잘못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시간 이상 길을 헤맸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히브리 시(Hebrew poem)는 대조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이 뚜렷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누가 대조되고 있습니까?(1절, 4절, 5절, 6절)

3.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교훈을 나눕시다.

1) _____ (counsel, thinking)

2) _____ (behavior, attitude)

3) _____ (position, belonging)

4. 2절에 나타나는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5. 3절에 나타나는 복 있는 자의 특징은 '형통'입니다. 형통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까?(3절)

6.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악인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4절) 또한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비교됩니까?(6절)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지 겸손히 한해를 마무리 하며 오늘 교훈을 나눕시다.

■ **적용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 이름 찬양

성례 사역

해바라기 처럼 주바라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가 처음으로 교회에 와 유아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저희 가정이 부모 된 마음으로 은혜롭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섬기는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결단과 온 가족, 모든 성도님의 축복을 받으며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들을 보며 가슴 벅찬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첫 단추인 세례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더해져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박병임 집사(세례 사역)

마음과 정성과 정결의 3중주라 표현하는 성찬 준비는 주님과 귀한 권사님들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도주로 쓰일 주스 병을 여는 것부터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주님 맞을 열 처녀의 등잔 기름 채움과 같지 않을까요? 안부라도 서로 나누려 하면 어느새 선배 권사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성찬에 마음을 다하라"는 엄한 소리에 다시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성찬은 모든 성도님이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함이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기에 오래 앉아서 하시기에 힘드실텐데 때마다 모여 주십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기도의 어머님'이라 하듯이 우리들도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팀장님의 푸짐한 오찬을 먹으며 화기애애하였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조숙 권사(성찬 사역)

MOD를 통해 성례팀 사역을 시작한 지 10여 년, 다양한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사역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됩니다. 성찬 팀에서 가장 오랜 시간 섬기신 선배 권사님의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과 따끔한 훈계 덕분에 이 사역을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 주스 남은 것은 봉사자들이 마시지 않고 땅에 버려서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하나하나가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 참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성찬을 준비하는 성례팀에서 계속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명오 권사(성찬 사역)

저희 가정에 주신 지민이를 건강히 보살펴주심 감사드리며,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부족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사랑,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류충환 집사

이민오면 누구나 다닌다는 교회를 우리 가족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신 후, 엄마와 몇 년만에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친구를 사귀려는 마음으로 나간 교회는 발길을 끊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운동, 성격,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범생이고 싶어 신앙인처럼 친구 따라 교회 활동에 참여했으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기뻐 뛰고 기도하며 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던 저는 기쁨도 눈물도 샘솟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속이 텅 비어있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보여달라고 수련회에서 기도하던 중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지만, 베델교회 예삶에 와서 저는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셀목자, 초등부 교사, 축복팀 사역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받은 세례 말고는 제 의지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세례를 여태 미뤄온 것은 제 부족함을 드러내기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야 할 때인 것 같아 용기를 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빈손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들며 주님 바라봅니다.

김유리 성도

선생님과 친구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전공인 반주를 하며 믿음 없이 다닌 기간은 제법 되었지만, 결혼하면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많은 사랑받고 좋은 남편, 예쁜 딸과 행복하였지만, 뇌성마비로 태어난 둘째 아이로 매일 울고 모든 것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할 때 친구의 전도로 베델교회 오케스트라에 등록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고 미국에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낯선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성도

베델 사역 한눈에 보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2년, 어느새 유종의 미를 거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100가지가 넘는 베델의 귀한 사역을 맡아 물. 심. 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 주일, 사역의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셨음을 저희 베델의 온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에서 묵묵히 순종하시는 리더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섬김이 삶이 되신 팀장님들 덕분에, 팀원들도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함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겸손과 열심으로 섬기시는 모습들이 모여 베델교회라는 든든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가닿는 사역이 있으신가요? 좀 더 알고 싶은 사역도 있으시죠? 다가오는 2023년, 베델의 온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델뉴스팀

방송 스케치 - QT 카페(2)

지혜자, 탐구자 솔로몬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QT, 커피와 함께 삶을 마시는 QT 카페! 이번 주는 교회학교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이정연 전도사님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 말씀 중 전도서 2장 1절 -11절로 QT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솔로몬이 누렸던 '낙(樂)'은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유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제도 돌아서 나오면 채워지지 않거나 마치 그 즐거움은 순간이 되고 잊혀져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2주 전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솔로몬에 대해 설교를 하실 때 솔로몬에게 천 명의 아내와 첩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헛헛한 솔로몬의 마음이 천 개로 나눠진 것과 같다고 전하였더니 그때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하여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가는 모습을 기뻐했던, 외모가 주는 기쁨을 추구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후 나눔으로 뜨거운 분위기에 빠질 수 없는 QT 카페의 게스트 맞춤형 커피와 간식을 조 목사님이 준비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간식인 '하리보 젤리'와 '스윙칩', 그리고 솔로몬이 좋아했을 것 같은 원두를 럼(rum)에 숙성한 커피를 손수 준비해 나누면서 솔로몬이 누린 그 즐거움을 간식과 커피에서 느껴보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지혜자 솔로몬에게는 모든 시도가 즐거운 탐구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나누면서, 솔로몬의 결론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인생에 대해 진실로 탐구했던 지혜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정연 전도사님은 헛헛함이 남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QT 나눔을 통해 찾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으로 헛헛함을 이겨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는 조 목사님의 인사로 QT 카페 두 번째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베델뉴스팀

베델 선교 - 온두라스

선교가 네 것이냐?

첫 단기선교로 왔던 1년 내내 덥고 습한 이곳 온두라스에서 4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0년 동안 청춘을 바쳤습니다. 처음 트랙터 운전과 건축을 배우고 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4년 반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유치원 선생님인 아내는 방학 때마다 온두라스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 미국 내에서의 직장을 잃은 적도 있고, 세 자녀는 선교지와 미국을 오가는 통에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런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에서는 두 곳의 학교에 천 명이 넘는 학생 사역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역지에서는 협력자나 후원자가 없이 1년의 어려움 끝에 선교를 그만두고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가 네 것이냐?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의 힘으로 나의 선교를 했던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12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매년 학생이 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증축 및 기자재가 필요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에 현지의 한국 분이 기부의 도움을 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지난 14년 반 동안 함께 선교의 길을 걸어준 아내 이순미 선교사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저는 15살에 꿈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교가 되는 것,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 보육원 원장이 되는 것. 이 모든 꿈이 하나님 안에서 선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큰 새로운 꿈이 생겨 기술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은 병원을 보건소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더 합당하게 쓰임이 다하기를 서포트하며 간호 교육, 병리, 장비 테크니션, 병원 행정까지 우리가 기술학교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학교가 쉬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재정비하여 이번에는 270명의 학생을 맞이합니다. 앞으로를 준비하며 불러주신 베델 선교대회에서 많은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베델교회와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동철/이순미 선교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헌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성탄절 창작 뮤지컬

안녕하세요. 베델 가족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아 베델 워십에서 "내 삶 속의 마구간"이란 제목으로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베델교회에서 선보이는 100% 창작물입니다. 겉으로 볼 땐 한없이 평화롭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갈등의 연속인 평범한 크리스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매일 매일의 삶과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베델 워십 멤버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뮤지컬은 찬양팀의 리더 박경철 목사님께서 극본과 연출을 담당하셨고 베델워십 뮤직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정봉화 간사님께서 작곡 및 음악감독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온 교회가 함께 모일 기회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요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함께 베델교회 본당에서 뜻깊은 패밀리 타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본당
▶문의: 김언조 집사 (714)333-6724

사역광고

'달빛마을' 초청 집회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베델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연주로 많은 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구독자 18만 명의 부부 찬양사역자 유튜버 달빛 마을tv가 베델의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담은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골방 라이브로 잘 알려진 이 부부의 골방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이제까지 수 많은 그리스도인과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부르는 곳이라면 주님이 가라 하신 부르심으로 알고 어디든 찾아간다는 복음의 5분 대기조 이 부부가 올해 4월 출산 후 더욱 귀한 간증을 가지고 오십니다. 추운 겨울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따뜻한 온기 가득한 은혜의 시간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16일(금) 오후 7시
▶장소: 유년부실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1월) I	12/18:	①부-이대은	②부-안지호	③부-이길수	④부-이정수
	12/25:	①부-여홍평	②부-윤영걸	③부-이상노	④부-김도윤
	1/1:	①부-이선갑	②부-박원규	③부-김병인	④부-박소율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1월) I	12/17: 이상열	12/24: 이성호	12/31: 이승호	1/7: 이영복	
강단꽃(12,1월) I	12/11: 이자영	12/18: 한태성	12/25: 박중현, 윤주원	1/1: 류재영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I 의사-오세영(한의과), 간호사-장수잔 다음주 I 의사-이근웅(정형외과) 간호사-오선희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I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I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I**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I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양선)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I** 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I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베얀)
***선교기관 I**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I**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I**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 예배 안내 및 장소 변경** 이번 주, 수요일만 오전 10시, 정승락 목사님의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 시리즈가 본당 조명 공사로 인해 EM채플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신임임직자 주행 임직사관학교** 교인총회 최종 인준 받으신 2023년 신임 임직자(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임 임직자는 2주에 걸쳐서 베델교회 사역을 참관하게 됩니다.
일시/장소: 12월 16일(금)–17일(토), 체육관
사역 참관: 12월 18일(주일), 25일(주일) 오전 11시.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앞에서 모입니다.
***참석을 못하실 경우는 보강수업을 받게 됩니다.**

◆ **임직 예배** 연말 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 된 2023년 신임임직자들의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8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설교: 박영배 목사 (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

◆ **주중 새벽 기도회 장소 변경** 본당 조명 공사로 인해 다음 한주간은 비전채플에서 있습니다.
기간/장소: 12월 13일(화)–16일(금)까지 비전채플

◆ **제 57차 전도폭발 종강예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결신의 열매들을 보고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기도 후원자,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 등 마음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종강예배로 초대합니다.
문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달빛마을' 초청 집회** 아름다운 찬양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 찬양 사역 유투버 달빛마을(골방 라이브) 부부의 집회를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12월 16일(금)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베델 창작 뮤지컬**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베델창작 뮤지컬 "내 삶 속의 마구간"을 공연합니다. 이번 뮤지컬에 온가족과 함께 더불어 주위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을 함께 초대하여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로 찬양집회도 드려집니다.
일시/장소: 1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

◆ **교회학교 2023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등록** 2023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기간동안 매일 출석한 어린이들은 특별히 제작 된 후드 티셔츠를 받습니다. 새벽기도회에 전기간 참석할 자녀들은 각부서에서 제공한 등록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 **12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2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사 만찬** 한해동안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여 주신 모든 교사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일시/장소: 12월 11일(주일) 오후 4시 30분–7시 30분, 체육관

◆ **C2C 청소년 힙합 댄스 Workshop** C2C "Call to Christ" 다양한 워십 중의 하나인 힙합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찬양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1월 6일(금)과 1월 13일(금) 오후 4시–7시
대상: 6–12학년 베델 교인 (2022–2023학년)
등록/등록기간: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12월 11일(주일)–12월 31일(토)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현호승 전도사 (949)677–4911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다가오는 2023 봄학기 개강과 함께 베델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매학기 늘어가는 학생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문의: 이석희 장로(949)607–7606, 최문정 권사(949)836–7687

◆ **2023년 강단 꽃 봉헌** 2023년도에 예배실 강대상의 꽃을 각 가정의 감사 혹은 추모로 봉헌하실 성도님께서는 교회 사무실에 싸인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축하해 주세요**
- 오늘(11일) 3부 예배 때 이진서/이주현 집사의 아들 이로운(Kaleb)과 이마태/황지영 집사의 아들 이루오(Jordan)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 이형석 전도사/이지은 사모 가정에 아들 이현우(Benjamin)가 12월 5일(월)에 태어났습니다.
- Mark Liu/Michelle Kim 성도 가정에 아들 Rohan An-Yu Liu가 12월 7일(수)에 태어났습니다.
- 예삶의 이신경 자매와 박상우 형제의 결혼식이 12월 17일(토)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최욱송 장로님(정선희 권사의 부친, 정승환 집사의 장인)께서 12월 4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박형만 장로님(박선재 집사의 부친, 박미숙 집사의 시부)께서 12월 4일(주일)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 캠페인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 유미경 권사 ■ **사 진 :**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The Righteous Way, The Righteous Finish
(Psalm 1:1–6)

Apply to Life

1. Have you ever taken a wrong road? Share your experience of searching over an hour to find the right path.

2. Hebrew poem has clear characteristic of conveying messages through contrasting phrases. Who is the blessed man compare with?(vv. 1, 4, 5, 6)

3. Blessed is the man in v.1 is compared in three different ways. Think about the meaning of each one and share its lesson.

1) _____ (counsel, thinking)

2) _____ (behavior, attitude)

3) _____ (position, belonging)

4.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Blessed man' in v. 2?

5. Characteristic of Blessed man in v.3 is 'prosper'. What is your image of prosper?(v.3)

6. What is the image of wicked that is compared to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v.4) Also how is the final day of blessed man compared to wicked man?(v.6) As we close out this year, let's humbly contemplate on which way you have chosen to go. Share today's lesson.

■ **Song in Respons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Blessed Be Your Name